



국회의원 김 한 표

보 도 자 료

경남 거제시
2013. 10. 15(화)
산업통상자원위원회
운영위원회

[국회]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.02)784-4760~2 Fax.02)788-0170
[거제]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-21번지 명성빌딩 4층 Tel.055)632-7822 Fax.055)638-4553
담당 : 김성훈비서관(010-3851-8656)

김한표 의원,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'나들가게' 증가

-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(SSM)에 맞설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골목 슈퍼마켓인 '나들가게'가 문을 닫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(새누리당 원내부대표, 거제시)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'나들가게 폐업취소 동향 및 지원금 환수 현황'에 따르면,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폐업하거나 협약을 해지한 점포는 788개로 전체 점포의 7.8%다.
-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06개, 2012년 102개, 2013년 480개로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. 폐업 사유는 경영악화가 578개로 가장 많았고, 점주의 취소요청(89개), 사망·건강 등 개인사유(66개) 등이었다.
- 한편, 점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돼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나들가게는 126개, 3억6천328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. 정부는 지금까지 12개 점포에서 2천82만 원을 환수했다.
- 김한표 의원은 “상당수의 나들가게 대부분은 편의점에 밀려 하루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편의점에서는 김밥, 샌드위치 등 다양한 편의 상품들로 손님을 끌지만 나들가게는 그러한 차별화 전략이 없어 매출이 늘지 않는다”고 지적 했다.
- 또 김 의원은 “나들가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점포 늘리기 실적 쌓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기존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< 2010년~2013년 8월 나들가게 폐업·취소 현황 > ('13.8말 기준)
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
기존 점포수	-	2,302	5,101	9,703
신규 개점	2,302	3,005	4,704	-
폐업	0	152	76	416
비율(%)		2.9%	0.8%	4.3%
취소	0	54	26	64
비율(%)		1.0%	0.3%	0.7%
합계	2,302	5,101	9,703	9,223

< 2010년~2013년 8월 나들가게 폐업·취소 현황 > ('13.8말 기준)

사유		점포수	비율(%)
폐업	경영악화	578	89.7
	건강악화 및 점주사망	65	10.1
	자연재해	1	0.2
	소계	644	100
취소	점주 의사(취소요청)	89	61.8
	직권 취소(협약 위반)	55	38.2
	소계	144	100
합계		788	7.9

* 폐업 : 경영난, 점주 개인사정 사업폐지/ 취소 : POS 미사용, 편의점 전환 등 협약위반(미폐업)

<광역시도별 2010년~2013년 8월 나들가게 폐업·취소 현황> ('13.8말 기준)

행정구역	개점	폐업		취소		합계	
			비율(%)		비율(%)		비율(%)
서울	1,408						
부산	512	111	7.9	37	2.6	148	10.5
대구	637	39	7.6	4	0.8	43	8.4
인천	589	34	5.3	5	0.8	39	6.1
광주	478	35	5.9	10	1.7	45	7.6
대전	292	41	8.6	5	1.0	46	9.6
울산	277	32	11	3	1.0	35	12
경기	1,760	22	7.9	10	3.6	32	11.5
강원	476	111	6.3	24	1.4	135	7.7
충북	476	19	4	3	0.6	22	4.6
충남	516	24	4.7	7	1.4	31	6.1
전북	441	33	7.5	6	1.4	39	8.9
전남	715	41	5.7	11	1.5	52	7.2
경북	497	28	5.6	8	1.6	36	7.2
경남	672	33	4.9	2	0.3	35	5.2
제주	540	36	6.7	6	1.1	42	7.8
전국	201	5	2.5	3	1.5	8	4
	10,011	644	6.4	144	1.4	788	7.9